大韓韓方小兒科學會誌
Vol.6, No.1, 1992

小兒遺尿 및 夜尿의 治法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

李進容 * · 金德坤 * · 丁奎萬 *

Ⅰ. 緖 論

小兒의 夜尿症(Nocturnal Enuresis)은 小便을 가릴 수 있는 연령이 지나서(4～5세 이후) 睡眠中 無意識的으로 오줌을 싸는 것을 말한다.[1,2,4]

遺尿는 不知不覺而尿出이고 小便失禁은 知而不能固를 말하며 夜尿(尿床)은 睡中不覺而尿出을 말한다.[1] 그러나 張[23] 林[22] 王[15] 等은 症狀의 輕重이 있을 뿐 同一한 개념으로 보았다.

小兒가 腎氣不足하거나 下元虛寒 또는 脾肺氣虛, 肝經鬱熱하면 膀胱의 約束 機能을 상실하게 되어 睡中遺尿가 된다고 하였다.[17]

小兒의 10～15%는 5세가 되어도 밤에 오줌을 가리지 못하며 정상아의 1%는 15세가 되어도 小便을 가리지 못한다고 하였다.[4]

西洋醫學에서는 夜尿症의 경우 成長하면서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거나 부모 또는 환자의 면접 그리고 정신안정제를 사용하는 약물요법 또는 buzzer요법을 사용해서 치료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東洋醫學에서는 巢[10]이 尿牀의 病因을 설명한 이래 臟腑辨證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여 왔다.

本人은 이미 夜尿(遺尿)의 病因·病理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시도한 바 있고 이어서 隨代부터 淸代에 이르기까지 26종의 韓方文獻을 中心으로 夜尿(遺尿)의 治法 및 治方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小兒夜尿의 효과적인 치료를 꾀하고자 本 小考에 臨하게 되었다.

Ⅱ. 本 論

(1)

「黃帝內經 素問 譯解」

〈宣明五氣篇〉 "…… 下焦溢爲水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

(膀胱은 小便排泄을 주관하는데 氣實則 小便不利하여 癃閉가 되며, 氣虛則 不能約束하여 遺溺가 된다고 楊[14]은 譯解하였다.)

「黃帝內經 靈樞 譯解」

〈本輸篇〉 "……入絡膀胱 約下焦 實則閉癃 虛則遺溺 遺溺則補之 閉癃則瀉之"

(遺溺의 病性은 多屬虛證으로 보고 治療時 補法을 쓴다고 보았다.)

「仲景全書」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而 面垢譫語 遺尿 發汗則譫語 下之則 額上生汗 手足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

(三陽合病중 여기서 遺尿는 太陽에 속하는 증상으로 보았고 치료시 白虎湯을 쓴 것은 內外의 熱을 治하기 위함이다.)

「諸病源候論」

"夫人有於眠睡不覺尿出者 是其禀質 陰氣偏盛陽氣偏虛者 則膀胱腎氣俱冷 不能溫制水則小便多 或不禁而遺尿……"

"從膀胱入於胞爲小便 夜臥則陽氣衰伏 不能制於陰氣 獨發水下不禁 故於眠睡而不覺尿出也"

(治法이나 治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고 치료는 補陽之法을 제시하였다.)

「備急千金要方」「小兒衛生總微論方」

○治小兒遺尿方

瞿麥 龍膽 皂莢 桂心 各半兩 鷄腸草一兩 車前子一兩六錢 石韋半兩 人蔘一兩

右八味末之蜜丸 每食後服如小豆大五丸日三加至六七丸

○又方 小豆葉擣汁服

○又方 燒鷄腸末之 漿水服方寸匕 日三 一云面北斗服

(鷄腸을 쓰는 예가 등장하였음)

「聖濟總錄」

腎虛하면 水液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補腎하는 方劑를 열거하고 澁劑의 사용도 兼하였다.

○蓯蓉丸~治腎臟虛冷 腰膝無力 小便不利不禁或溺白色

○鹿茸散~治腎臟虛 腰膂 疼 冷夜 遺小便

○兎絲子散~治小便不禁

○黃蓍散~治小便不禁

○鷄腸散~治小便不禁 日夜無數

○鵲巢散~治小便不禁

「三因極一病證方論」

遺尿失禁時 治心腎을 소개하였고 家韮子丸이 등장하였다.

○家韮子丸~治少長遺尿 及男子虛極 陽氣衰敗小便白濁 夜夢泄精 此藥補養元氣 進飮食.

○阿膠飮~治小便遺失不禁

○張眞君茯苓丸~治心腎氣虛 神志不守 小便淋瀝不禁 及 遺精白濁.

○鷄內金散~治溺牀失禁

「仁齋小兒方論」

遺尿와 尿牀을 腎과 膀胱이 虛한데다 挾冷하여 생긴다고 보았다. 治方은 鷄腸散을 소개하였고 나중에 楊氏鷄腸散이라고 하여 薛[9] 王[15] 等의 저서에 나온다.

또한 鷄肫胵 一具와 鷄腸을 燒存性하여 男子는 雌鷄를 女子는 雄鷄를 服用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世醫得效方」

陳[31]의 家韮子丸과 鷄內金散을 그대로 실었으며 固元丹과 桑螵蛸散을 소개하였다.

○固元丹~治內虛裏寒 自汗時出 小便不禁

○桑螵蛸散~治小便日數十次如稠米甘色 心神恍惚 瘦悴食減 以女勞得之

「普濟方」

遺尿는 腎과 膀胱이 虛한데다가 冷氣가 乘하여 생긴것이고 尿床은 禀受陽氣不足하여 胞冷하여 傳送失度한 것으로 보았다.

處方은 〈三因極一病證方論〉의 家韮子丸, 〈聖惠方〉의 牡蠣散·鷄肫胵散·白朮散 및 羊肚絲복용법·羊脬를 쓰는 법이 있고, 〈直指方〉의 楊氏鷄腸散과 鷄肫胵를 用하는 법, 〈千金方〉의 瞿麥丸 및 小豆葉 응용법, 그리고 〈經驗良方〉의 破故紙 一味 복용법과 〈本草〉의 薔薇根·麻鞋綳帶로 遺尿 또는 尿床을 치료하는 처방이 실려있다.

○家韮子丸~治下元虛冷遺尿

○牡蠣散~治小兒遺尿. 體瘦 心煩不欲食

○楊氏鷄腸散~治小兒夜間遺尿 睡裏自出不覺

由膀胱有熱 服冷藥過多 小便不禁

○鷄肫胵散～治小兒遺尿 不可禁止

○白朮散～治小兒遺尿 足寒

「丹溪心法」

小便不禁의 病因을 虛熱과 虛寒으로 분류하고 內虛寒自汗者는 秘元丹과 家韮子丸(三因極一病證方論)을 用하였고 內虛濕熱者는 六味地黃丸 或 八味丸加 杜仲, 補骨紙, 五味子를 썼다. 이외에 腎虛多溺에 暖腎丸을 소개하였다.

○秘元丹～助陽消陰 正氣溫中 內虛裏寒 冷氣攻心 脹痛泄瀉 自汗時出小便不禁 陽衰足冷 眞氣不足 一切虛冷

○暖腎丸～治腎虛多溺 或小便不禁而濁

○三因家韮子丸～治下元虛冷 小便不禁 或成白濁.

「醫學綱目」

小便不禁 또는 尿床의 治療處方으로 楊氏 鷄腸散을 실었고 단방으로 破故紙와 薏苡仁을 썼다.

「嬰童百問」

小兒의 尿床은 膀胱이 冷한 것에 말미암으로 또 夜는 陰에 속하므로 수면중 소변이 自出한다 하여 破故紙散을 썼고 益智之劑를 빠뜨릴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五倍子 單味를 소개하였다.

「保嬰撮要」

腎과 膀胱의 氣가 虛寒해서 遺尿 또는 尿床에는 破故紙散, 益智散, 鷄腸散으로 主之하였고 熱이 腎을 客하여 痿痺가 되었거나 虛熱에는 六味地黃丸을 썼다. 그리고 脾肺의 氣가 虛弱하면 補中益氣湯에 補骨脂, 山茱萸를 加하여 썼다. 單方으로 五倍子를 역시 소개하였다.

「醫學入門」

實熱로 膀胱의 火가 動한 것으로 因한 小便不禁은 四苓散 合 三黃湯에 五味子, 山茱萸를 加하고, 虛熱로 因한 것은 四苓散 合 四物湯加山梔·升麻한다.

腎과 膀胱의 氣虛는 十全大補湯加 益智仁 또는 縮泉丸·大兎絲子丸·二苓丸을 쓴다.

밤이 되면 더욱 小便不禁이 甚해지고 內虛自汗者는 丹溪心法의 秘元丹을 쓰며, 內虛濕熱者는 腎氣丸·八味丸 減 澤瀉 附子 加 五味子 杜仲 破故紙 倍山茱萸하고, 內虛寒冷者는 古桂附湯·大兎絲子丸加 肉桂하여 쓴다.

勞心者는 妙香散·桑螵蛸散을 쓰고 勞役傷脾者는 補中益氣湯을 쓴다.

小兒胞冷으로 因한 小便不禁은 鷄胵胵散을 쓴다.

「古今醫鑑」

遺尿失禁은 溫補를 해야하고 李杲의 "小便遺失은 肺氣虛이므로 蔘芪로써 補한다"는 것을 인용하였다. 단 老人의 小便不禁 혹은 頻數은 膀胱火動이 多하므로 補血瀉火를 本으로 하고 澀之收之를 치료의 標로 삼는다고 하였다.

「萬病回春」

遺尿失禁이 氣虛로 因한 것은 蔘芪湯加減을 쓰고, 老人은 虛寒이 많으므로 蔘附湯加減을, 壯人은 虛熱이 많으므로 滋陰降火湯을 加減하여 쓰고, 暑月의 伏暑熱로 因한 것은 人蔘白虎湯을 加減하여 쓴다고 했다. 또한 勞而益甚하고 脾氣虛弱하면 補中益氣湯加 山藥·五味子한다.

「本草綱目」

虛熱과 虛寒, 止塞으로 나누어 本草를 정리하였다.

○虛熱～香附子, 白薇, 麥門冬, 土瓜根, 牧丹皮, 生地黃, 續斷, 漏盧, 茯苓, 黃栢, 石膏

○虛寒～仙茅, 補骨脂, 益智仁, 覆盆子, 菟絲狗脊, 蕨萁, 人蔘, 黃芪, 鷄腸草, 牛膝, 薔薇根甘草頭, 菟絲子, 五味子, 肉蓯蓉, 蒺藜, 菖蒲,

附子, 山藥, 茴香, 韭子, 乾薑, 小豆葉, 糯米, 芡實, 蓮實, 銀杏, 胡桃, 蜀椒, 桂, 烏藥, 山茱萸, 桑螵蛸, 雄鷄肝, 鷄腸, 脬胵, 鹿茸, 鹿角, 麝香, 羊肺, 肚, 脬, 猪脬, 猪腸, 秋石

○止塞~石榴, 荷葉, 金櫻子, 訶子, 麻鞋帶鼻, 鵲巢中草, 牡蠣, 龍骨, 赤石脂

「證治準繩」

遺尿 및 尿床이 腎과 膀胱이 俱虛해서 挾冷으로 生한 것은 鷄腸散을 쓰고, 熱客於腎하여 痿痺가 된것은 六味地黃丸을 쓰고, 脾肺氣虛者는 補中益氣湯加 補骨脂·山茱萸해서 쓰며, 下元虛冷해서 心腎傳送失度되고 禀受陽氣不足하면 家韭子丸 또는 參苓白朮散 補腎地黃丸을 쓴다. 그리고 補腎不如補脾의 이론에 의한 平胃散加 益智仁을 소개한것도 주목할만하다.

○張鷄腸散~治因膀胱有熱 服冷藥過多 小便不能禁止 或遺尿病

○益智丸~治 脾腎虛熱 心氣不足 遺尿白濁

○破故紙散~治膀胱虛冷 夜間遺尿 或 小便不禁

「東醫寶鑑」

小便不禁의 이론은 直指方, 綱目, 入門, 丹溪心法의 說을 인용하였고 治方은 綠泉丸(醫學入門), 秘元丹(丹溪心法), 五子元(得效方), 家韭子丸(得效方), 參芪湯(萬病回春), 鷄腸散(得效方), 鷄脬胵散(萬病回春), 大菟絲子丸(得效方), 茸香丸(直指方), 旣濟丸(醫鑑) 等을 실었다.

○五子元~治小便不禁 遇夜愈多 頭眩脚弱 老人虛人 多有此證 大能耗人精液 令人卒死

○大兎絲子元~治脬氣虛寒 小便不禁

○茸香元~治 虛損 遺尿不禁 或虛冷尿多

○旣濟丸~治脬氣不足 有陰火 小便不禁

「景岳全書」

張景岳은 遺尿의 論證에서 氣는 水의 母라고 하여 水泉不止 膀胱不藏한 것은 氣虛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遺溺는 대개 虛寒에 속한 것이지 熱證은 아니며 熱證이라면 淋濁門에 해당된다고 논박하였다.

小便不禁時 固澁之劑를 쓰는 것은 治標에 해당되는 것이며 腎은 위로 肺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治腎者는 반드시 治肺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人蔘·黃蓍·當歸·白朮·肉桂附子·乾薑을 主로 쓰고 固澁之劑는 佐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는 鞏隄丸이 있으며 이것은 心脾肺腎을 治하는 작용이 있다.

한편 脾肺氣虛에는 補中益氣湯·溫胃飮·理中湯·歸脾湯·四味回陽飮이 사용되었고, 肝腎陽氣虧敗에는 右歸飮·大補元煎·六味回陽飮·四維散 或은 集要四神丸을 쓰며, 睡中遺溺者는 大兎絲子丸·家韭子丸·五子丸·縮泉丸을 쓴다. 소아는 앞에 열거한 처방을 골라서 쓰되 猪나 羊의 溲脬를 炙胞해서 쓰면 효과가 뛰어나다고 했으며, 이외에 恐懼輒遺者의 경우 心氣不足한 것이 아래로 肝腎에 이어져 그러한 것이니 大補元煎·歸脾湯·五君子煎으로 主之한다고 했다. 덧붙여 遺溺를 治하는 壯陽固澁劑를 열거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茴香益智丸, 二氣丹·固脬丸·秘元丹·牡蠣丸·濟生兎絲子丸·固眞散

遺溺의 述古에서 內虛寒者는 秘元丹·家韭子丸을, 內虛濕熱者는 六味丸或加 杜仲·補骨脂를, 損破尿胞者는 參朮補胞湯加 猪羊胞煎을, 肝經血虛에는 四物山梔를, 肝經濕熱에는 龍膽瀉肝湯을, 脾氣虛弱에는 補中益氣湯加 山藥 五味子를, 陰挺痿痺에는 六味地黃丸을, 膀胱熱結에는 五淋散을, 脾肺燥不能化生者는 黃芩清肺飮을, 膀胱陰虛 陽無所生者는 滋腎丸을, 膀胱陽虛陰無所化者는 六味丸을 쓴다고 소개하고 있다

「醫宗必讀」

肺虛者는 上虛하므로 當補氣하는데 補中益氣

湯을 쓰고 膀胱이 虛한 者는 下虛하므로 마땅히 澁脫하는데 桑螵蛸나 鷄胵胵 等이 쓰이며 挾寒者는 家韮子丸·固脬丸·白茯苓散·兎絲子散 等이 쓰이고, 滑脫者는 牡蠣散, 挾熱者는 白薇散 或 鷄腸散을 쓴다.

한편 睡中遺尿者는 虛로 因한 것이며 嬰兒는 脬氣가 未固한 것이며 老人은 下元不足으로 因한 것인데 嬰兒는 대개 挾熱이 多하며 老人은 대개 挾寒이 많다고 하고 大兎絲子丸에 猪脬炙하여 硏碎한것을 煎湯으로 服用한다고 하였다.

膀胱氣虛는 補脾肺하며 膀胱陰虛는 補肺腎한다.

「醫學心悟」

肝熱에는 加味逍遙散을 쓰고 氣虛에는 十全大補湯을 쓰며, 이때 老人은 挾寒이 많으므로 이 처방을 쓰며 小兒는 挾熱이 많으므로 六味地黃丸을 쓴다.

「幼幼集成」

小兒의 遺尿와 尿床은 腎과 膀胱의 虛寒이 多하므로 益智散加 附子, 桂, 龍骨하여 쓴다.

「幼科釋謎」

腎과 膀胱의 虛로 挾冷한 것은 鷄腸散을 쓰고 熱客於腎 痿痺者는 治方을 소개하지 않았다.

「類證治裁」

遺溺治方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고 張氏景岳全書와 同一한 것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調補心腎~寇氏桑螵蛸散, 氣不固攝~參·蓍·歸·朮·益智·五味·補骨脂·升麻, 肺虛~補中益氣湯加 五味·牡蠣, 腎虛~兎絲子散, 膀胱虛~固脬丸, 挾寒~家韮子丸, 挾熱~白薇散, 滑脫~秘元丹, 牡蠣丸, 命火衰~右歸飮·鞏隄丸, 下元虛損~固精丸, 睡中自遺多屬下元虛冷~宜螵蛸丸, 遺失不知交通心腎~寇氏桑螵蛸散, 小兒自遺多屬熱~沈氏鬮泉丸(間或因寒~鬮泉丸去山梔加山茱萸·補骨脂), 老人不禁多虛寒~大兎絲子丸加減(間或有熱~葦解分淸飮), 補膀胱津液~六味丸加麥冬·五味

「萬病醫藥顧問」

遺尿는 中虛者가 多하므로 補中氣해야 하는데 山藥을 食하고 脾虛者는 四君子湯을 腎虛者는 菟絲子丸을 常服한다고 소개하였다.

(2)

「調補心腎」

○歸脾湯 [23,22] ~人蔘 黃芪 白朮 茯苓 棗仁 各二錢 遠志 當歸各一錢 木香 炙甘草各五分

○妙香散 [21] ~麝香一錢 山藥 茯苓 茯神 黃芪 遠志各一兩 人蔘 甘草 桔梗各五錢 木香 2 錢半 辰砂三錢

○桑螵蛸散 [16,21,22] ~桑螵蛸 遠志 菖蒲 龍骨 人蔘 茯神 當歸 鱉甲

○二苓丸 [21] ~赤茯苓 白茯苓 各 等分 水澄爲末 別用 生地汁 同酒熬膏爲丸 彈子大 每空心嚼一丸鹽湯下

治心腎俱虛 神志不定 小便淋瀝不禁.

○五君子煎 [23,22] ~人蔘三錢 白朮 茯苓各二錢 炙甘草一錢 乾薑炒黃二錢 水一種半煎服

「脾肺之氣補」

○十全大補湯 [26] ~人蔘 白朮 茯苓 甘草炙 熟地 當歸 白芍各一錢 川芎五分 棗二枚加 黃芪 肉桂

○四君子湯 [18] ~人蔘 白朮 茯苓 甘草

○補中益氣湯 [9,6,21,23,20,22] ~治勞倦傷脾 中氣不足 淸陽不升 外感不解 體倦食少 寒熱瘧痢 氣虛不能攝血 等證

人蔘 黃芪 白朮炒 甘草炙各一錢半 當歸一錢 陳皮五分 升麻 柴胡各三分右加 薑棗水煎空心午前服

○參芪湯 [3,6] ~ 治氣虛遺溺失禁

人蔘 黃芪 茯苓 熟地黃 白朮 當歸 陳皮各一錢 升麻 肉桂各五分 益智仁八分 甘草三分 右剉一劑 薑三片 棗一枚 水煎 空心服

○四味回陽飮[23] ～人蔘二兩 製附子三錢 炙甘草二錢 炮乾薑三錢 水二鍾 武火煎七八分 溫服 徐徐飮之

「補(肝)腎陰」

○大補元煎[23] ～治男婦氣血大壞 精神失守 危劇等證

人蔘二兩 山藥炒二錢 熟地黃三兩 杜仲二錢 當歸三錢 山茱萸一錢 枸杞子三錢 炙甘草一錢 水二鍾煎七八分 食遠溫服

○鹿茸散[27] ～治腎臟虛 腰膂疼冷 夜遺小便

鹿茸 烏賊魚骨 當歸 白芍藥 龍骨 人蔘 桑奇生 桑螵蛸

○六味地黃丸[28,9,6,26,22] ～熟地黃 山藥 山茱萸 牧丹皮 澤瀉 茯苓

○菟蓉丸[27] ～治腎臟虛冷 腰膝無力 小便不利不禁 或溺白色

肉從蓉 杜仲 黃芪 韭子 桂心 牛膝 山茱萸 右七味擣羅爲細末 鍊蜜丸

「補腎陽」

○家韭子丸[31,16,29,28,3,20,22] ～治少長遺尿 及男子虛極陽氣 衰敗小便白濁夜夢泄精 此藥補養元氣進飮食

韭子 六兩 鹿茸四兩 菟蓉 牛膝 熟地 當歸各二兩 巴戟 兎絲一兩半 杜仲 石斛 肉桂 炮薑各一兩 右爲末 酒糊丸 每服五十丸 加至百丸 鹽湯溫酒下 小兒遺尿 多因胞寒 亦稟受不足故也 別作小丸服之

○大兎絲子丸[23,21,20,22] ～治腎虛小便不禁

兎絲子 澤瀉 鹿茸 石龍芮 肉桂 附子 各一兩 石斛 熟地黃 白茯苓 牛膝 續斷 山茱萸 肉菟蓉 防風 杜仲 補骨脂 蕈澄茄 沈香 巴戟 茴香各三兩 五味子 桑螵蛸 覆盆子 芎藭 右爲細末 酒煮麵糊丸 如桐子大 每服二十丸 空心溫酒 或鹽湯在下

○聾隄丸[23,22] ～治膀胱不藏 水泉不止 命門火衰 小水不禁等證.

熟地二兩 兎絲子 酒煮二兩 白朮炒二兩 五味子 益智仁 破故紙 附子 茯苓 家韭子各一兩 右爲末山藥糊丸

○六味回陽飮[23] ～治陰陽將脫等證

人參二兩 附子三錢 炮乾薑三錢 炙甘草一錢 熟地一兩 當歸身三錢 水二鐘武火煎七八分溫服

○暖腎丸[21] ～治腎虛多溺 或小便不禁

胡蘆巴炒 故紙炒 川練用牡蠣炒 去牡蠣 熟地 益智 鹿茸 山茱萸 代赭 赤石脂各七錢半 禹餘糧 龍骨 海螵蛸 熟艾 丁香 沈香 乳香各五錢

○鹿茸丸[22] ～鹿茸 椒紅 桂心 附子 牡蠣 補骨脂 石斛 菟蓉 鷄胜胵 沈香各一兩 桑螵蛸四錢 爲末酒糊丸 酒下

○參附湯[6] ～年老之人 虛寒遺溺者加 附子之參芪湯

○右歸飮[23,22] ～此益火之劑也 凡命門之陽衰陰勝者 宜此方加減主之

熟地 山藥二錢 山茱萸一錢 枸杞子二錢 甘草炙一錢 杜仲二錢 製附子三錢 肉桂二錢 水二鍾煎七分 食遠溫服

○濟生兎絲子丸[23] ～治小便多致失禁

兎絲子 肉菟蓉一兩 牡蠣 附子 五味子 鹿茸各一兩 鷄胜胵五錢 桑螵蛸五錢 右爲細末 酒糊丸 桐子大 每服七十丸 空心鹽湯 湯酒任下

○茴香益智丸[23] ～治老人陽虛失禁 及房勞傷腎遺溺

小茴香 益智仁 破故紙 川烏 烏藥各一兩 右爲末 山藥糊丸 桐子大 每服八十丸 鹽湯下

○兎絲子散[20,22] ～治小便不禁或過多

兎絲子二兩 牡蠣 附子 五味子一兩 鷄胜胵 肉從蓉各二兩 右爲末 每服二錢 粥湯送下

○四維散[23]～治脾腎虛寒 滑脫之甚 或泄痢不能止 氣虛下陷 二陰血脫 不能禁者 人蔘一兩 製附子二錢 乾薑二錢 甘草一錢 烏梅肉五分

「補脬脫」

○既濟丸[5,3]～治脬氣不足 有陰火 小便不禁

兎絲子 益智仁 白茯苓 韮子 肉蓯蓉 當歸 熟地黃 各五錢 黃栢 知母 牡蠣粉 山茱萸肉 各三錢 五味子一錢

○固脬丸[23,20,22]～治遺尿不覺小便不禁

兎絲子三兩 茴香一兩 桑螵蛸 附子 各五錢 戎鹽一錢

「治挾寒」

○白茯苓散[20]～白茯苓 龍骨 乾薑 附子 續斷 桂心 炙甘草 熟地黃 桑螵蛸 各二兩 右剉碎 每服四錢

○二氣丹[23]～治虛寒積冷 小便不禁 老人虛人尺脈虛人患此者.

硫黃 肉桂各二錢半 朱砂二錢 附子半兩

「治挾熱」

○白薇散[22]～白薇 白蘞 白芍 等分

○人蔘白虎湯[6]～治夏月因伏暑熱遺尿者

人蔘五分 石膏 知母 各一錢半 甘草三分 麥門冬 白朮各七分 梔子 茯苓 芍藥各一錢 陳皮七分 扁豆八個加 黃栢 右剉一劑 蓮肉十個 烏梅一個 水煎服

○滋陰降火湯[6]～治虛熱尿多

甘草炙五分 當歸一錢三分 白芍二錢三分 生地黃八分 熟地黃 天門冬 麥門冬 白朮各一錢 陳皮 知母 黃栢七分加 山梔子 右剉一劑 生薑三片 大棗一枚

「固澀之劑」

○固元丹[16]～治內虛裏寒 自汗時出 小便不禁 白龍骨三兩 訶子十個 縮砂一兩

○牡蠣丸[23,20,22]～牡蠣三兩 益智仁 赤石脂 各二兩

○秘元丹[21,28,3,23,22]～助陽消陰 正氣溫中 內虛裏寒 冷氣攻心 腹痛泄瀉 自汗時出 小便不禁 陽衰足冷 眞氣不足 一切虛冷

白龍骨三兩 訶子十個 砂仁一兩 靈砂二兩

「治遺尿(尿床)縮尿之劑」

○鷄腸散[13,29,15,3,12]～治小兒遺尿 不禁 多因脬寒 或稟受陽氣不足故也

鷄腸燒 牡蠣粉 白茯苓 桑螵蛸蒸 各五錢 桂 龍骨各二錢半 右剉 每二錢 薑三片 棗二枚 水煎 空心服 或爲末一錢 米飮調服

○鷄腸散[27,20]～黃鷄腸 黃連 肉蓯蓉 赤石脂 白石脂 苦蔘 各五兩 右爲末 每服二錢 食前酒下 日二夜一

○鷄肫胵散[29,3]～治小兒遺尿

鷄肫胵一具 鷄腸一具 燒存性 猪脬一箇炙焦 右爲末一錢 酒調下

○鷄內金散[31,16]～治尿床失禁

鷄肫胵一具 竝腸淨洗燒爲灰男用 雌女用雄者 研細 每服方寸匕 酒飮調服

○阿膠飮[31]～治小便遺失不禁

阿膠二兩 牡蠣 鹿茸 各四兩 每服四錢 空心服

○鵲巢散[27]～治小便不禁

重鵲巢中草一斤 薔薇根皮五兩

○白朮散[29]～治小兒遺尿 足寒

白朮半兩 土瓜根半兩 牡蠣粉三分 右羅爲散 每服一錢 以水一小盞 入生薑少許 棗二枚 煎至六分 去滓量兒大小 加減溫服

○黃蓍散[27]～治小便不禁

黃芪 狗脊 牡蠣 肉蓯蓉各一兩 萆解 牛膝 赤石脂 山茱萸 土瓜根三兩

○縮泉丸[21,3,23,22]～治脬氣不足 小便頻數 一日 百餘次

烏藥 益智仁 等分 爲末 酒煮 山藥糊和丸 梧子大 臨臥 鹽湯下七十丸

○益智散[30]～治水有 余火不足而遺溺

益智仁 補骨脂三錢 白茯苓五錢 共爲細末 每服一錢 鹽湯調下

○沈氏鬪泉丸[22]～益智仁 茯苓 白朮 白薇 黑山梔 白芍 水煎

○五子丸(元)[3,23]～治小便頻數 時有白濁

兎絲子 家韮子 益智 茴香 蛇牀子 去皮炒 右各等分爲末 酒糊丸 桐子大 每服七十丸 米飮鹽湯任下

「治肝經濕熱及肝經」

○加味逍遙散[26]～柴胡 甘草 茯苓 白朮 當歸 白芍 丹皮 黑山梔 各一錢 薄荷五分 水煎服

○龍膽瀉肝湯[22]～龍膽草 黃芩 梔子 澤瀉 生地 木通 車前 當歸 柴胡 甘草

「單味方」

○小豆葉[11,29,25], 鷄腸[11,25], 鷄肫胵[31,29,21], 羊肚[29,31], 羊脬[29], 破故紙[29,8,7,9,15], 薔薇根[29], 麻鞋綳帶[29], 薏苡仁[8,15], 猪脬[20], 大甘草頭[29], 五倍子[7,9], 荷葉[19]

Ⅲ. 總括 및 考察

遺尿는 不知不覺而屈出이고 小便失禁은 知而不能固를 말하며 夜尿(尿床)은 睡中不覺而尿出을 말한다.[1,2,4] 그러나 隋代부터 淸代에 이르는 韓方文獻에서는 이들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치료에 臨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內經 素問에서는 遺溺의 原因은 虛이므로 補法을 써야 한다고 보았다. 張[24]의 傷寒論에서 三陽合病時 遺尿의 症狀은 太陽經病에 속한다고 보고 肺胃의 實熱을 치료하는 方劑인 白虎湯을 소개하였다.

隨代 巢[10]는 遺尿와 尿牀을 구분하여 說明하였는데 治法이나 治方은 소개하지 않았으며 尿牀의 病因이 "陰氣偏盛 陽氣偏虛者 則膀胱 腎氣俱冷 不能溫制於水則 小便多 或小便不禁…… 膀胱入於胞爲 小便夜臥則 陽氣衰伏 不能制於陰 所以 陽氣獨發 水下不禁 故於眠睡而不覺尿出也"라고 하여 腎·膀胱의 陽氣를 補하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孫[11]은 小兒 遺尿 치료시 瞿麥散과 單方으로 小豆葉과 鷄腸을 燒하여 쓰는 것을 소개하였다.

趙[27]는 小便不禁으로 분류하고 補腎하는 菟蓉丸이나 麗茸散을 썼으며 그외에 補劑에 澁劑를 兼한 黃蓍散과 鷄腸散, 鵲巢散을 소개하였다.

陳[31]은 遺尿失禁의 치료시 心腎의 치료를 겸하는 治法을 소개하였고 家韮子丸은 補元氣하여 遺尿失禁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처방의 하나로서 後에 林[22] 李[20] 許[3] 朱[28] 危[16]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張眞君茯苓丸이 있는데 李[21]의 二苓丸과 같다. 이외에 鷄內金散이라 하여 鷄肫胵 單味를 썼고, 羊肚를 쓰는 것도 소개하였다.

楊[13]은 遺尿는 腎 膀胱을 補하여야 한다고 보고 脬寒 陽虛에 쓰는 鷄腸散을 作方하여 後에 薛[9] 王[15] 等이 楊氏鷄腸散으로 소개하였다.

危[16]는 家韮子丸 鷄內金散 外에 固元丹과 桑螵蛸散을 소개하였는데 朱[28]의 秘元丹은 固元丹에 靈砂를 加한 것이다.

朱[29]는 聖惠方 直指方을 中心으로 處方을 수집 정리하였으며 猪肚나 羊肚, 羊脬, 破故紙 薔薇根 小豆葉 麻鞋綳帶의 單味方을 소개하였는데 이들은 小兒夜尿의 치료에 일정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朱[28]는 小便不禁者는 屬熱 屬寒으로 나누고 熱者는 五苓散加 解毒하고 虛者는 五苓散加 四物한다고 內虛寒 自汗者는 秘元丹과 三因韮

子丸을 쓰고 內虛濕熱者는 六味地黃丸을 쓴다. 그리고 八味丸加 杜仲 補骨脂 五味子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小便不禁이 熱에 속한다고 한 것은 程[26]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으나 張[23]은 小便不禁은 熱證이 없고 熱證은 淋濁門에 넣어야 한다고 비판을 하였다.

樓[8]은 薏苡仁과 破故紙 單味方과 桂末과 雄鷄肝을 等分하여 服用하는 方法을 소개하였다.

魯[7]는 單味로 破故紙와 五倍子를 들었고 小兒尿床은 破故紙와 益智仁之劑가 빠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薛[9]은 膀胱不約으로 因한 遺尿는 破故紙散과 益智散 鷄腸散으로 主之하고 熱客于腎하여 痿痺하거나 虛熱로 因한 것은 六味地黃丸을 썼고 脾肺氣虛者는 補中益氣湯加 補骨脂 山茱萸하여 쓴다고 하였다.

李[21]는 小便不禁時 實熱의 膀胱火動에는 四苓散 合 三黃湯加 五味子 山茱萸하고 虛熱에는 四苓散合 四物湯加 山梔 升麻하였다. 腎·膀胱의 氣虛時에는 十全大補湯에 益智仁을 加해서 쓰고 線泉丸이나 大兎絲子丸을 썼다. 內虛自汗者와 內虛濕熱者의 경우로 朱[28]와 마찬가지로 각각 秘元丹과 六味丸 계통을 썼는데 이때 六味丸은 腎氣丸으로 대체하였다. 勞心者는 妙香散을 소개한것이 독특하며 勞役으로 傷脾한자는 補中益氣湯을 소개하였고 小兒胞冷으로 因한 小便不禁은 鷄肫胵散을 소개하였는데 종래 의가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질 않았다.

龔[5]은 遺尿失禁時 溫補가 마땅하다고 하였고 東垣의 補肺氣하는 參芪補之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老人의 小便失禁은 膀胱의 火邪가 妄動한 것이므로 補血瀉火를 本으로 하고 澁之收之를 標로 한다고 하였다. 治方으로는 線泉丸 旣濟丸과 有熱者의 경우 五苓散去 杜加黃連 黃栢 梔子 石蠶 五味子 하고 虛弱을 兼하였으면 五苓散 合 四物湯加 石蠶 五味子를 하였다. 이외에 破故紙의 單味의 응용과 益智仁 赤茯苓을 같이 다려 복용하는 方法을 소개하였다.

龔[6]은 遺溺失禁時 氣虛者는 參芪湯加減을 쓰고 年老者가 虛寒을 兼하였으면 參芪湯에 附子를 加한 參附湯을 썼으며 처방의 名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身體가 虛弱하고 夜啼하면서 遺溺失禁할 때는 人蔘·白朮·山茱萸·黃芪·白芍·各一錢 山藥·酸棗仁·各七分 甘草炙 四分하여 쓴다고 했는데 小兒에게 적용할 만한 처방이라 思慮된다. 또한 小水頻數한 遺尿失禁은 下元氣虛한 것이니 人蔘 黃栢各五錢 益智仁六錢 甘草一錢을 잠들기전에 복용한다고 하였다. 虛熱로 因한 것은 滋陰降火湯을 加 山梔子 去五味子 하고 夏月 暑熱로 因한 遺尿者는 人蔘白虎湯加 知母·黃栢 去 香薷하며 脾氣虛弱者는 補中益氣湯에 山藥 五味子하여 쓴다고 했다. 虛熱尿多에 滋陰降火湯을 用한 것은 龔[6]의 特徵이라 하겠다.

李[19]는 溲數遺尿에 虛熱·虛寒·止寒으로 分類하여 本草를 열거하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분 앞선 시대의 문헌을 중심으로 기록된 처방약물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王[15]은 楊[13]의 說을 인용하고 楊氏鷄腸散을 실었고 아울러 張鷄腸散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楊氏鷄腸散의 鷄腸대신 鷄腸草가 들어있다. 聖濟總錄과 醫宗必讀에 있는 鷄腸散은 처방명은 같으나 처방내용은 다르다. 脾肺氣虛者는 補中益氣湯加 補骨脂 山茱萸하였는데 龔[6]의 萬病回春에 山藥 五味를 加하거나 林[22]의 모려 오미자를 加하는 것과 구별되고 稟受陽氣不足에 三因家韮子丸이나 參苓白朮散 補腎地黃丸을 썼다. 이외에 補腎不如補脾의 이론에

의해 平胃散加 益智仁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許[3]는 小便不禁門에서 樓[8] 楊[13] 李[21]의 說을 인용하고 처방은 李[21]의 縮泉丸, 朱[28]의 秘元丹, 危[16]의 五子元, 家韭子元, 太兎絲子丸, 龔[6]의 參芪湯, 楊[13]의 鷄腸散, 茸香元, 龔[5]의 既濟丸을 소개하고 있는데 독특한 이론은 없고 종래의학서적에서 출전한 것을 모은 것이다.

張[23]은 遺溺를 論證과 論治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氣는 水의 母가 되므로 治水者는 반드시 治肺를 하는데 人參·黃芪·白朮·肉桂·附子 乾薑之類를 쓰고 固澁之劑를 佐로 삼는다고 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作方한 것이 鞏隄丸이며 이는 心脾肺腎을 다스린다고 했다. 그는 또 脾肺氣虛로 因한 것은 補中益氣湯 理中湯 溫胃飮 歸脾湯 或 四味回陽飮을 用하는데 써서 효과가 없으면 腎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고, 肝腎陽氣虧敗로 因한 것은 右歸飮 大補元煎 六味回陽飮 四維散 集要四神丸 或八味地黃丸 去 澤瀉해서 쓴다고 했다. 이외에 睡中遺溺者는 大兎絲子丸 家韭子丸 五子丸 縮泉丸을 쓰고, 恐懼輒遺者는 心氣不足하여 아래로 肝腎에 連하여 그런 것이나 大補元煎 歸脾湯 五君子煎을 쓴다고 했다. 兼하여 壯陽固澁之劑를 소개하고 있는데 茴香益智丸, 二氣丹, 固脬丸, 秘元丹, 牡蠣丸, 濟生兎絲子丸, 固眞散 等이 이에 해당된다.

李[20]는 肺虛者는 上虛로 마땅히 補氣하여야 하는데 補中益氣湯을 쓰고, 膀胱虛者는 下虛이니 마땅히 澁脫하여야 하므로 桑螵蛸 鷄肫胵等을 쓰고 挾寒者는 家韭子丸, 固脬丸, 白茯苓散, 兎絲子散 等을 쓰고, 挾熱者는 白薇散 鷄腸散을 쓰며 滑脫者는 牡蠣丸을 쓴다고 했다. 또한 睡中遺尿는 모두 虛함을 責해야 하는데 嬰兒는 脬氣未固하고 夾熱이 많고, 老人은 下元不足하고 夾寒이 많은데 治方은 大兎絲子丸을 猪脬로 다린 물에 복용하되 寒熱을 살펴 치료한다고 했다.

程[26]은 小便不禁을 肝熱, 氣虛, 腎敗로 나누고 肝熱時 加味消遙散을 쓰고, 氣虛하면 十補湯을 쓰며, 小兒는 挾熱이 많다는것은 李[20]의 說을 인용하였으며 이때 六味地黃丸을 쓴다고 했다.

陳[30]은 尿牀은 腎과 膀胱의 虛寒이므로 益智散에 附子 肉桂 龍骨을 加하여 쓴다고 한것 외에 다른 처방은 소개하지 않았다.

沈[12]은 단지 楊[13]의 說과 治方인 鷄腸散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다.

林[22]은 睡中自遺者는 心腎을 調補하여야 하는데 寇氏桑螵蛸散을 써야 한다고 했고 肺虛者는 補中益氣湯加 牡蠣, 五味子를, 腎虛者는 兎絲子丸, 膀胱虛는 固脬丸, 挾寒者는 家韭子丸, 挾熱者는 白薇散, 滑脫者는 秘元丹·牡蠣丸, 命火衰者는 右歸飮·鞏隄丸을 소개하였고 이외에 恐懼輒遺者나 治腎者 先治肺의 이론은 張[23]의 說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小兒自遺者는 대부분 熱에 속하는데 沈氏鬪泉丸을 쓰고 간혹 寒으로 因한 것이 있는데 鬪泉丸에서 山梔를 去하고 山茱萸·補骨脂를 加해서 쓴다고 했는데 이는 他문헌에서 인용되지 않은 것이다.

陸[18]은 遺尿의 調養에는 鷄肫胵와 腸을 燒하여 복용하고 中虛者는 補中氣해야 하는데 山藥을 久服하고 치료시 脾虛者는 四君子湯을, 腎虛者는 兎絲子丸을 常服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때 澤瀉 車前子 猪苓 木通 같은 尅伐藥은 服用하지 말라고 했다.

以上의 문헌을 개별적으로 총괄해본 결과 夜尿나 遺尿는 腎·膀胱의 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치료시 肝 心 脾 肺 腎 모두 관련이 되

어있고, 경락적으로는 三焦, 督脈 任脈 肝經을 거론하고 있다.

肝經과 관계있는 加味逍遙散이나 龍膽瀉肝湯을 쓴것은 肝主疏泄과 肝腎同源의 說과 관계가 깊고, 心은 心腎의 傳送失度의 說에 의해 歸脾湯이나 桑螵蛸散, 二苓丸 等이 있는데 茯神이나 茯苓·石菖蒲·遠志·龍骨·酸棗仁 等이 쓰였는데 連子肉·元肉 等도 응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려된다. 그리고 夜尿는 睡眠中尿自出하는 것이므로 수면의 조절을 관여하는 대뇌피질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는 麻黃의 응용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脾는 濕의 조절에 관여하며 補腎不如補脾의 說이 있고 脾의 기능이 원할해야지만 後天之氣의 작용이 원만해져 夜尿나 遺尿의 本治를 위해서는 脾를 다스려야 한다. 脾肺의 氣에 대한 작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脾肺의 氣를 補하는 補中益氣湯은 精神을 다스리는 약이나 澁劑를 보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더욱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려되고, 본론에서 열거한 처방중 치료목적을 위한 것보다 처방구성요소에 필요한 甘草를 제외하고는 人蔘 黃芪 白朮 茯苓을 포함한 횟수가 많은 것으로도 補氣가 夜尿나 遺尿의 치료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腎을 다스리는데는 補腎陽이 중요시 되었는데 巢[10]의 이론에 의한 것처럼 膀胱虛冷이 중요한 病因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張[23]은 熟地黃과 附子를 多用했음은 腎陽을 돕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破故紙는 單味로 많이 사용되었고 命門火를 돕는 益智仁도 빠뜨릴 수 없는 本草의 하나가 되었다. 이외에 補腎陽 시키는 鹿茸·兎絲子·家韭子·肉蓯蓉도 자주 등장하였고 補腎陽 하는데는 祛寒作用이 있는 肉桂 乾薑·小茴香이 補助作用을 자주하였다. 그리고 夜尿나 遺尿의 치료에서 固澁藥의 작용을 간과할 수 없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桑螵蛸·龍骨·山茱萸 五味子 牡蠣가 자주 등장하였다. 動物性 약재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닭인데 鷄腸 鷄肫胵 鷄內金이 常用되었고 羊肚나 羊脬 猪脬도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사려된다.

小兒夜尿를 치료할 때는 虛實寒熱의 分辨이 중요한데 小兒에게 熱症이 많다고 한 李[20] 程[26] 林[22]의 思想은 明나라 후기에 비롯된 說인데 本人은 熱보다는 寒이 더 야뇨를 일으키는 작용을 한다고 사려가 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Ⅳ. 結　　論

隨代부터 淸代에 이르기까지 26종의 韓方文獻을 中心으로 夜尿 및 遺尿의 治法 및 治方에 대한 文獻考察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補法은 脾肺의 氣를 補하고 腎陽을 補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瀉法은 肝經과 膀胱濕熱을 瀉하였다.

2. 小兒의 遺尿 및 夜尿를 치료하는 方劑에 포함된 本草는 補陽, 補氣, 安神, 祛寒, 固澁, 縮尿, 補血, 補陰하는 약물순으로 되어있다.

3. 小兒의 遺尿 및 夜尿에 單味로 사용된 것은 鷄肫胵, 荷葉, 小豆葉, 羊肚, 羊脬, 破故紙, 五倍子, 大甘草頭, 猪脬, 薏苡仁, 麻鞋綳帶等이었다.

參 考 文 獻

1. 杜鎬京 : 東醫腎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

究院, 1986, p.177.
2. 丁奎萬：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1985, p.528.
3. 許　浚：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87, p.173-174.
4. 洪彰義：小兒科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9, p.526.
5. 龔　信：古今醫鑑, 江西科學技術出版社, 1990, p.208, 211.
6. 龔廷賢：萬病回春, 大中國圖書公司, 1981, pp.254-255.
7. 魯白嗣：嬰童百問, 上海書店出版, 1985, 卷八 pp.14-15.
8. 樓　英：醫學綱目, 서울, 一中社, 1991, p.1598.
9. 薛　己：保嬰撮要,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219-220.
10. 巢元方：諸病源候論, 서울, 驪江出版社, 1988, 文淵閣四庫全書 734卷中 pp.664-665.
11. 孫思邈：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00.
12. 沈金鰲：幼科釋謎,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pp.118-119.
13. 楊士瀛：仁齋小兒方論,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6, pp.143-144.
14.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一中社, 1991, p.207.
15. 王肯堂：幼科準繩, 新文豊出版公司, 1979, pp.161-162.
16. 危赫林：世醫得效方, 서울, 驪江出版社, 1988, 文淵閣四庫全書 746卷中 pp.237-238.
17. 劉慧瑾：中醫兒科學, 山東科學技術出版, 1988, p.105.
18. 陸青節：萬病醫藥顧問, 大中國圖書公司, 1986, 內科內傷病中 pp.148-149.
19. 李時珍：本草綱目, 서울, 一中社, 1982, pp.233-234.
20. 李中梓：醫宗必讀, 서울, 文光圖書公司, 1984, pp.327-329.
21. 李　梴：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5, pp.1539-1541.
22. 林珮琴：類證治裁, 서울, 成輔社, 1980, pp.483-485.
23. 張景岳：景岳全書, 서울, 翰成社, 1983, pp.539-541.
24. 張仲景：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234.
25. 著者未詳：小兒衛生總微論方, 서울, 驪江出版社, 1988, 文淵閣四庫全書 741卷中 p.311.
26. 程國彭：醫學心悟, 大聯出版社, 1961, pp.198-199.
27. 趙佶 外：聖濟總錄, 서울, 驪江出版社, 1988, 文淵閣四庫全書 739卷中 pp.306-307.
28. 朱丹溪：丹溪心法, 서울, 杏林出版, 1965, pp.203-204.
29. 朱　橚：普濟方,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850-851.
30. 陳復正：幼幼集成,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179.
31. 陳　言：三因極一病證方論, 서울, 驪江出版社, 1988, 文淵閣四庫全書, 743卷中 p.326.